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3년 교회표어: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3:14)
- ◎ **부활주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훈련:** 임직자 훈련이 오늘 (3월 31일)부터 교회에서 있습니다.
시간: 오후 4:30- 6시 30분 기간: 12주
- ◎ **모임:** 각 남녀 선교회 임원 모임이 1부 예배 후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 ◎ **월식 기도회:** 4월 1일(월) 월식 기도회의 날입니다. 새로운 한달의 시작을 기도로 열어 행통한 4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새벽 5:50 장소:Chapel Room
- ◎ **기도회:** 오는 4월 6일(토) 오후 6시30분 1분기 항존 직분자 전체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 ◎ **Daylight Saving:** 이번 주로 끝납니다. 토요일날 주무실 때 1시간 뒤로 (예: 밤 11시를 10시로) 시계를 돌려놓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 ◎ **연합 축제:** 갈보리 공동체가 다함께 참여하는 연합 축제가 4월 26일(금)에 있을 예정입니다. (주제: 예수 그리스도, 힐링, 그리고 선교)
- ◎ **골프대회:** 남 선교회를 중심으로 골프대회가 4월 27일(토)에 있습니다.

4월 새벽 기도회 본문

- 5일: 창 41:17-31 풍년과 흉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12일: 창 43:1-14 하나님의 꿈 다시 찾으가기
19일: 창 46:1-27 하나님과 함께할 또 다른 축복의 땅
26일: 창 49:1-7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한 자녀들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중국: 김강한목사
비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밀알장애인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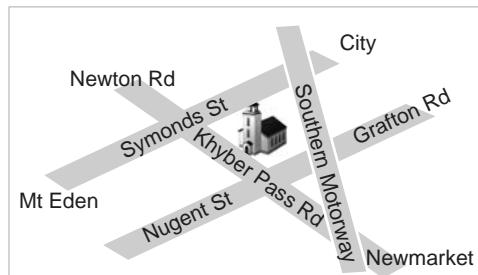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종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2013년 3월 31일 (부활주일)

15권 13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3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 3:14)

은하수 가을달

발에 걸리는 대로 신발을 끼고 쓰레기를 버리려 나갔다. 벌써 가을인가 밤기운이 싸늘한데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타운하우스 쓰레기통들이 나란, 나란, 마치 고택의 장항아리들처럼 줄지어 서있다. 달빛은 많은 것을 감싸주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추억을 헤집기도 한다. 습관처럼 떠들어본 우편함 속엔 소식은 없고 하얀 달빛만 소복하다. 아! 은하수 가을달. 초등학교 시절엔 습자시간이 일주일에 연이어 두 시간씩 있었다. 첫 시간엔 신문지나 허름한 종이에 연습을 하고 둘째 시간엔 정서를 해서 덜 마른 먹이 혹은 번지기라도 할까 칠판 밑에 주욱 늘어놓는다. 일찍 끝나는 아이들은 별 좋은 창가에 모여 조용히 수다를 떨기도 하고 아직인 아이는 숨죽여 한 희씩 써내려간다. 어쩌다 먹물이 옷에 묻기라도 하면 밥알을 짓이겨 바르기도 하고 뒤 아이의 봇으로 등짝에 원치 않는 묵화가 그려지기도 하면 작은 시비가 불기도 한다.

그런데 갑자기 창가 남자아이들 쪽에서 뱅글뱅글 누굴 향해 놀리는 듯한 웃음을 들을 웃는다. 한 아이가 은하수 가을달의 점을 안 찍어 ‘은하수 가을달’이라 써서 칠판 아래 펴 놓았던 게다. 그 웃음들은 순식간에 번져 온 교실이 술렁이는데 나는 “어쩜 좋아. 끝날 시간이 다되어가는데 저걸 언제 다 쓰냐?” 그때 그걸 알아차린 그 아이(아이라지만 나보다 세 살이나 더 먹은 언니뻘이었다. 그 시절엔 전란으로 학령기를 놓친 애들이 서너 살씩 어린 우리들과 한 교실에서 공부하곤 했었다. 몽당 치마저고리를 자주 입고 체격도 크고 나중 생각해 보니 의젓하기도 했었던 것 같다. 동급생으로서보다는 언니처럼 나를 쟁겨주던 그 애), 아무튼 그 애는 봇에 먹을 꾹꾹 묻혀들고 성큼성큼 칠판 쪽으로 가더니 “히”자에 점 하나, “딜”자에 점하나를 찍고는 주전자 두개쯤 걸 수 있게 입을 내밀고 양손을 텔이개 텔듯 흔들고, 또 양발로 교실마루를 쾅쾅 구르며 제자리로 돌아오더니 책상에 옆디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사람의 입이 저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교실에서 그렇게 크게 울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안에서 계속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전주	인도: 이태한 목사 반주자
예배로 부름	베드로전서 1:3-4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10장
※ 성시교독	134. 부활주일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161장
대표기도	최득수 집사
성찬식	집례자
성경봉독	요한복음 20:1-9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빈 무덤
찬송	이태한 목사
헌금기도	다함께
※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축도	인도자
※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태한 목사

주일 2부 예배 (15:00)

인도: 심창진 목사
찬양 / 다함께
기도 / 박찬준 형제
성경봉독 / 요 20:19-20
설교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심창진 목사
찬송 / 나의 하나님
헌금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축도 / 심창진 목사

수요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김윤숙 집사
성경 / 삼 20:8-18
설교 / 베냐민 지파의 반발 / 이태한 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544장
주기도 / 다함께

건축현금 지난주: \$ 150.00

총계: \$ 630,828.29

◎ 4월 교회일지

월식기도회:
4월 1일(월)

항존직분자 기도회:
4월 6일(토)

한주간 기도회:
4월 22일(월) - 26일(금)

연합축제:
4월 26일(금)

◎ 4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박병민 / 이기중

새신자 안내:
김수원/최희숙

주차안내:
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기도: 최득수 집사

다음 주일 1부: 이광희 장로

다음 주일 2부: 정진택 집사

4월 10일 수요기도: 김태만 집사

4월 10일 애찬기도: 장연식 집사

4월 14일 1부: 이규임 권사

4월 14일 2부: 김정훈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위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건물 매입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전이면 주인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이 일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임직자 훈련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임직자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시고 교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도록, 불신자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전도 할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2. 뉴질랜드와 해외를 위해

동성간 결혼 합법화 반대를 위한 연합 기도가 계속되도록, 또 이 일로 한인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는 계기가 되도록, 물질적 도덕적 타락, 교권주의, 분열이 만연해 있는 한국 교회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 기독교 본질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열방에 알리도록.

필리핀 - 장기 밀매단이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기를 적출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장기 밀매단이 체포되도록.

※ 이번 주 갈보리 공동체 각 나라를 위한 기도 내용은 쉽니다.

(앞장에서 이어집니다)

그동안 어린 것들과 공부하면서 마음에 맺혔던, 또는 부끄럽기도 했던 그 어떤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올라온 건 아니었을까 생각한 것은 아주 먼 훗날이었다. 나는 작은 손으로 너른 그녀의 저고리 등을 쓰다듬으며 창가 쪽의 머슴아들을 으쓱하는 기분으로 돌아보았다. “너들은 얘가 처음부터 다시 쓸 줄 알았지? 점 두개로 ‘은하수 가을달’을 은하수 가을달로 만드는 것 봤지?” 그날 그 애와 나는 키가 엄청나게 큰 미루나무 꼭대기에 빨간 노을이 걸리고 참새들 수천마리가 노을 속에 작은 점으로 요동칠 때 아무도 없는 너른 운동장을 가로질러 늦은 귀가를 했었다. 슬픈 일을 치른 모녀지간처럼……

나이가 들면서 잠이 없어진다는 것은 지난 일들을 되새김질해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잘한 일들은 별로 떠오르지 않고 물수제비를 뜨듯 후회만이 튀어 오른다. 하지만 지나간 삶을 한 점으로 찍어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지나간 삶을, 또 돌아올 나의 생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점 하나씩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해 본다. ‘은하수 가을달’의 혼돈을 은하수 가을달로 바꿀 수 있는 그 점들을.

- 이경자 권사